

이쿠노 은광은 일본 굴지의 채굴량을 자랑하는 광산이었습니다. 이곳은 메이지 정부가 1868년 프랑스인 기사들의 지원을 받아 근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선포한 최초의 국영 광산입니다. 광산에서 히메지의 항구를 향해 남쪽으로 달리는 '이쿠노 광산료 마차길'(현재의 '은의 마차길')은 1876년에 완공되었으며, 이쿠노는 일본의 산업 근대화를 상징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1,000년 이상의 채굴 끝에 이쿠노 광산은 1973년에 폐광되었습니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방문객들이 광산의 역사와 다양한 시대의 채굴 기술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옛 갱도 안에 전시물이 설치되었습니다. 갱도의 출입구 부근에는 인포메이션 센터와 에도시대(1603-1867년)의 제련 과정을 보여주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쿠노 광산 관련 유구(이쿠노 광산 및 광산촌의 문화적 경관)는 국가 선정 중요 문화적 경관입니다.